

완주군 '초남이성지' 발굴 착수

한국 최초 천주교 순교자 유해 발굴지... 역사적 가치·문화적 의미 제고 등 재조명 추진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유해가 발견된 완주군 초남이성지가 재조명을 위한 발굴착수 작업이 전개된다.

16일 완주군은 이서면 남계리의 바우배기(초남이성지) 현지에서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과 최원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남이성지 발굴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발굴착수는 순교자 유해와 함께 무덤터와 유물 등에 대한 유적 보존과 정비, 문화재 지정 등을 위해 진행된다.

군은 이번 발굴을 통해 초남이성지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제고하고 조선 후기 역사·사회상 확인의 조사 자료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오는 31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천주교 전주교구 호남교회사연구소 주최와 주관으로 '초남이성지 2차 학술세미나'를 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행사는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확인에 따른 초남이성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초남이성지는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 사회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종교문화유산"이라며 "문화재 지정과 학술연구를 통한 역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유해가 발견된 완주군 초남이성지가 재조명을 위한 발굴착수 작업이 16일 남계리 바우배기(초남이성지) 현지에서 김선태 천주교 전주교구장과 최원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완주군 제공>

사 재조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 초남이성지에서는 지난해 한국 천주교 최초 순교자 유해와 유물이 200여년 만에 발견됐다.

신해박해(1791년) 때 순교한 윤지충 바오로, 권상연 야고보 복지의 유골과 신유박해(1801) 때 순교한 윤지현 프란치스코 복자 등 3인의 유해와 유물이 확인됐고 유해는 초남이성지 교리당에 안치됐다. /뉴스시

군산대, 군산문화도시센터 위탁 운영사 선정

법정문화도시 선정 위한 군산문화도시사업 본역 추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군산시 문화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군산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한다. 군산시는 2022년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실행을 위해 지난 2월 공모평가를 통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군산문화도시센터의 위탁 운영사로 최종 선정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문화도시사업의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2022년 12월까지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군산문화도시센터는 군산시민 및 군산시와 함께 문화공유대학, 동네문화추진단, 동네문화카페, 공감리빙랩, 문화공유원탁, 문화공유포럼 등의 세부사업을 실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할 계획이다.

군산문화도시센터의 박성진 센터장(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교수)은 "군산문화도시센터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

전과 군산시민의 문화적 삶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센터 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군산문화도시센터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군산대 박화래 교수(역사철학부), 오원환 교수(미디어문화학과), 이호 교수(경영학과), 김태형 교수(영어영문학과)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문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며, '문화공유도시, 군산'의 비전을 실천하게 된다.

군산시 예비문화도시사업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동네문화추진단, 동네문화카페 등 시민 참여사업 공모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예술의전당·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 교육생 모집

익산예술의전당과 국립발레단은 오는 22일까지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레를 배우는 '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 발레 수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은 국립발레단 단원 출신 강사가 직접 발레 전문수업을 제공해 발레에 재능이 있는 미래의 발레리나나 발레리노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참가자들은 올해 4월 5일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국립발레단의 공익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역의 기관과 협력해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레단의 수준 높은 교육과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발레 체험의 기회를 갖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자아 함양은 물론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수강생들은 8개월간의 교육 기간에 국립발레단과 함께 작품을 제작하고 올 연말에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국립발레단과 합동 공연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하여 참여 청소년의 자긍심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부터 진행할 발레 수업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2회씩 추진되며, 수업료는 전액 무료이다.

수업에 필요한 레오타드(발레 의상)와 슈즈 등 필요한 물품들도 무료로 제공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국립전주박물관, 오늘부터 특별전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17일부터 특별전 '이집트-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에는 실제 미이라를 비롯해 94점의 고대 이집트 문화재가 선보인다. 이 전시는 지방 국립박물관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이집트 관련 전시다. 특히 전시품을 출품한 미국 브루클린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이집트 관련 컬렉션으로 손꼽히는 박물관 중 하나다.

이집트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로, 약 5천 년 전부터 나일 강을 중심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시장은 크게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홍진근 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고대 이집트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당시 사람들의 삶과 발자취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누리집이나 전화(063-220-1037, 1067)로 문의하면 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현재 사전 예약 없이 관



람세스 2세 새김돌.

람할 수 있으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간재 전우 초상화' 도 유형문화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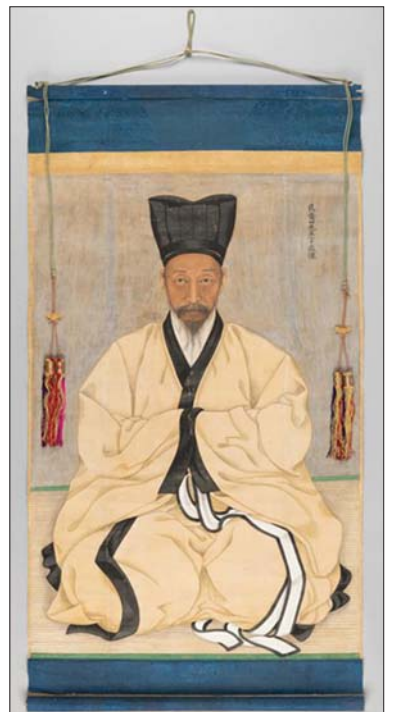
조선 마지막 유학자... 부안군 소장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89호로 지정된 간재 전우 초상화는 간재 전우(1841~1922)의 후손인 담양 전씨의 집안에서 부안군에 기증한 유물로서 초상화의 앞면(良齋田先生七十世像)과 뒷면(辛亥十月二十七日田定山郡守蔡龍臣移模)의 기록을 통해 어진화사(御眞師) 석지 채용신(蔡龍臣, 1850~1941)이 1911년에 1908년 촬영한 사진(戊申六月二十一日)을 보고 그린 초상화로 확인된다.

비단바탕에 채색하고 상·하단에 축을 달아 두루마리 형의 족자로 제작되었다.

전주 출신 호남 기호화파의 거두이자 항일 운동가인 간재 전우는 조선시대 말기~일제강점기에 활동하였던 대표적인 유학자로 그의 초상화는 현재 여러 분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번 부안 간재 전우 초상화는 제작연대와 제작자가 명확하며, 작품의 수준이 높아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지정되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조선후기 3,000명의 제자를 양성한 조선 마지막 유학자 간재선생의 굳은 의지와 정신이 화폭에 온전히 담겨진 초상화가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기쁘다. 이번을 계기로 간재선생의 한국 유학 사상을 재조명하고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소장 채용신 필 간재 전우 초상화(정면)

부안=김석진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